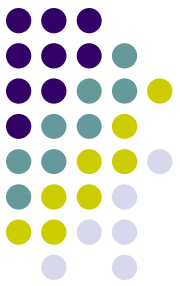


코로나19가 홈리스에게 미친 영향과 대응

로즈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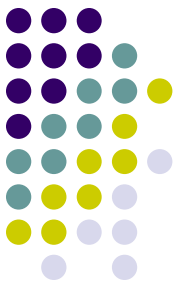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순서

- 1.코로나19로 드러난 노숙인등지원체계의 문제
- 2.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
- 3.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
- 4.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천원의 연대’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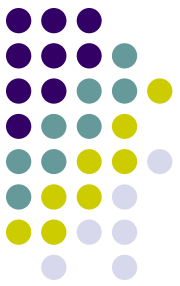


- **‘노숙인 등’, ‘홈리스’**

- ‘노숙인 등’은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정의로, 1)주거없이, 2)노숙인시설에서, 3)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음.
- 실제로는 거리노숙, 노숙인시설, 정부가 인정한 쪽방 거주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노숙인’ 즉, “이슬을 맞고 자는 사람”과 유사한 주거 형태만을 선택 해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개념.

⇒ 우리는 비록 외래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들을 포괄해야한다는 의미에서 ‘홈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함.

1.코로나19 : 노숙인 등 지원체계의 문제 노출



❖ 급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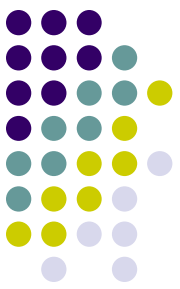
<지원 유형별 노숙인 등 대상 급식제공 실태 (2020. 3월 현재)>

(단위: 개소)

구분	민간 지원 (교회, 비영리단체 등)	공적 지원 (서울시 노숙인 지원기관)
급식 지속	12 (48.0%)	8 (100.0%)
급식 중단	13 (52.0%)	0 (0.0%)
합계	25 (100.0%)	8 (100.0%)

- 2020.03.07, 보도자료, 홈리스행동

1.코로나19 : 노숙인 등 지원체계의 문제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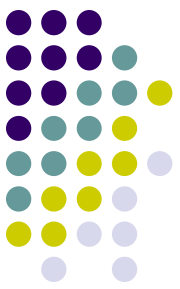
❖ 급식 지원

- 급식을 중단하지 않은 20개 단체·기관 중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신고 돼 있는 기관은 모두 4곳에 불과(2020.2.기준) . 이 중 3곳은 서울시 위탁기관, 1곳은 민간기관.

⇒ 위생관리는 물론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급식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

⇒ 공적 급식지원 기관 8개소 중 5개소가 미신고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현행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 급식지원체계의 부실을 드러냄.

1.코로나19 : 노숙인 등 지원체계의 문제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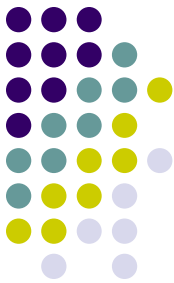
❖ 의료 지원

- ‘노숙인 등’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정한 병원에 한정됨. 절대 다수가 공공병원.
- 공공병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발병 시 집중 치료 시설로 지정 됨.

⇒ 이들 병원 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홈리스들은 진료공백을 겪을 수 밖에 없음.

⇒ 서울의 경우 이용 가능한 9개 병원 중 5개소가 초진 환자 제한 또는 입원 제한을 시행하고 있음.

1.코로나19 : 노숙인 등 지원체계의 문제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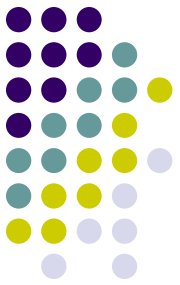
❖ 고용 지원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반일제)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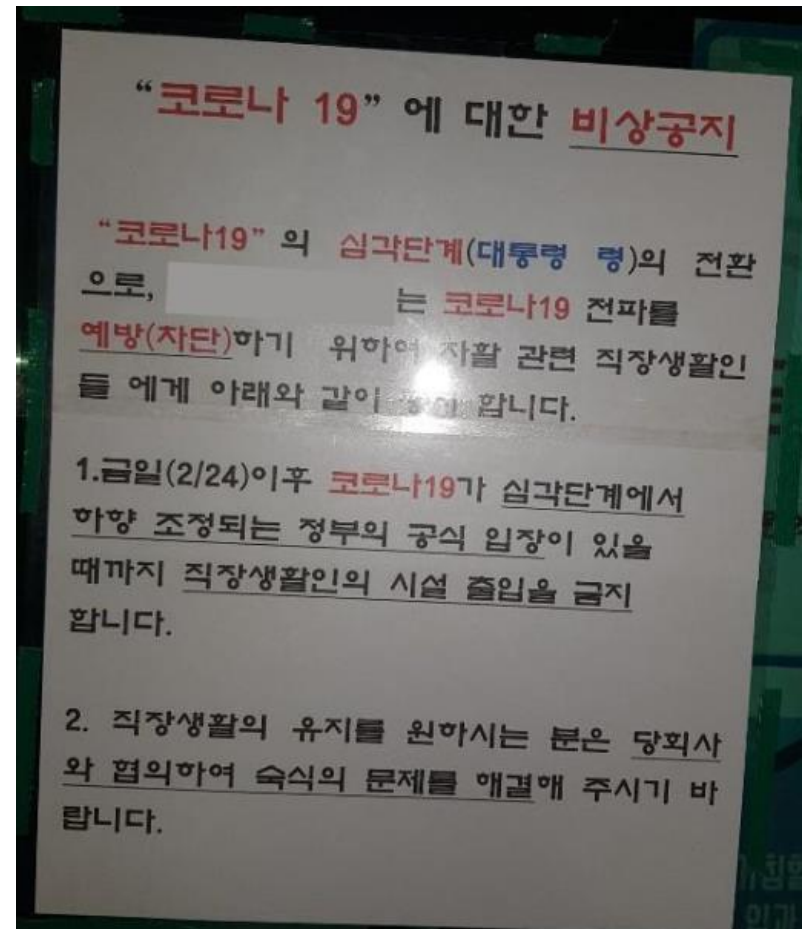
상반기	하반기	비고
🕒 근로시간		
하루 5시간	→ 하루 4시간	1시간↓
📅 근로일수		
월 15~19일	→ 월 14~18일	1일↓
💰 평균임금		
월 64~81만 원	→ 월 48~62만 원	월 16~19만 원↓

1.코로나19 : 노숙인 등 지원체계의 문제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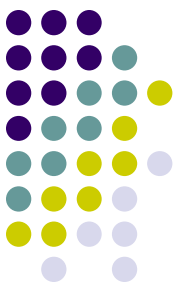


❖ 주거 지원

- 생활시설 중심의 주거 지원 대책
 - 여러 명이 한 방을 쓰는 구조
 - 감염예방을 이유로 출입금지를 시키는 일도 발생



1.코로나19 : 노숙인 등 지원체계의 문제 노출



❖ 주거 지원

- 임시주거지원 : 주로 거리홈리스를 대상으로 고시원과 쪽방 등지의 임시주거지로 진입하도록 지원. 화장실, 세면장 등 공용 사용
- 일시보호시설 : 십 수 명 ~ 수 십 명의 인원이 한 곳에서 취침

⇒ 생활시설, 임시주거, 일시보호시설 모두 집단 감염에 취약

1.코로나19 : 노숙인 등 지원체계의 문제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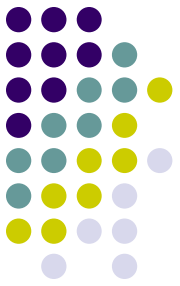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 전 세계의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의 상승세를 완화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집에 머물기’, ‘자가 격리’, ‘물리적 거리두기’, ‘손씻기’ 정책을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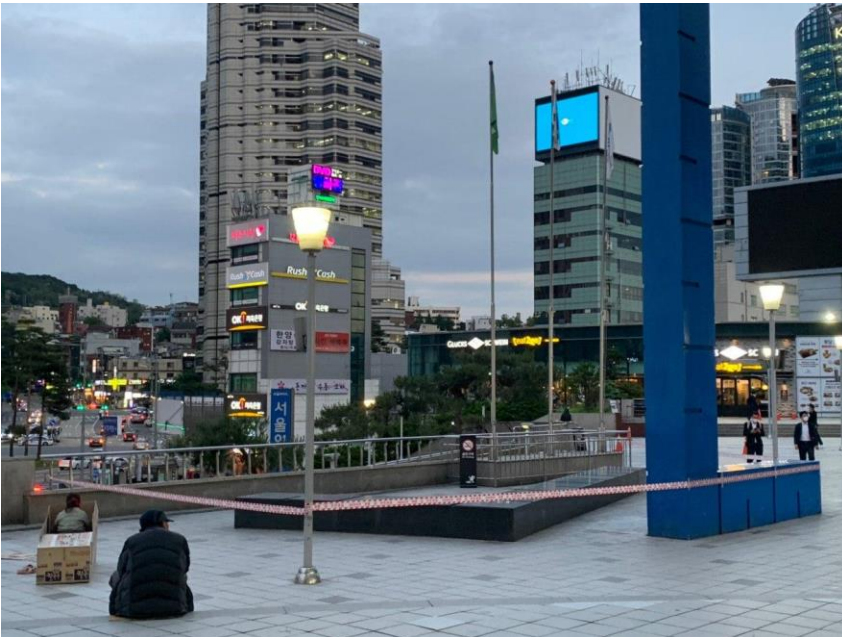
이러한 정책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위생 서비스를 갖춘 집이 있다는 가정 하에 제시된다. 이러한 전염병에 직면하여, 적절한 주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홈리스에 대한 잠재적인 사형 선고이며, 더 많은 인구를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한다. (...)

- 2020.04.28, 코로나19 대응 지침(유엔 주거권특보)

2.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



❖ 공공장소에서의 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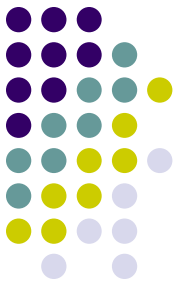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2.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



❖ 공공장소에서의 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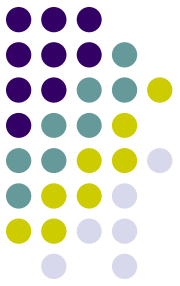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2.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



❖ 공공장소에서의 퇴거



2.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



❖ 공공장소에서의 퇴거

부산역 대합실 심야시간 폐쇄, 노숙인 출입 금지

박혜람 기자 rang@bus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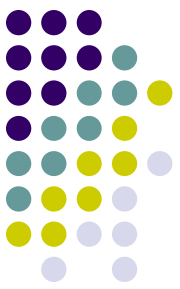


입력: 2020-05-07 19:24:26 수정: 2020-05-07 19:30:48 게재: 2020-05-07 19:31:28 (10면)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 부산일보DB

2.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



❖ 개발지역 쪽방 주민 퇴거

- 2월 말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 접어들며 서울시는 “잠시 멈춤”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윤만이 진리인 건물주들은 멈출 줄 몰랐다. 전염병 위기에도 아랑곳 않고 주민들을 내쫓았다.
- “리모델링 공사”, “외벽에 큰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을 이유로 건물주들을 쪽방 주민들을 내보냈다. 비워진 건물들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것 말고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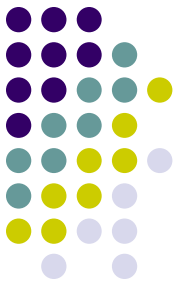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2.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



❖ 개발지역 쪽방 주민 퇴거



2.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



의견서

제재 .

집도 있으면 여기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마쳐 보내고 싶다.

여기에서 사는 날까지 살다가 가고 싶다.

- 2019.12, 개발에 대한 남대문 쪽방 주민 의견서 중

2.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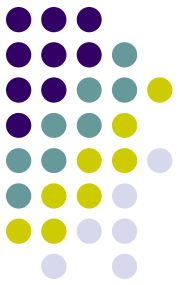


의견서

수백년 노력하며 얻어낸 이렇게 쪽방에
여와 산지가 이런 2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 우리 쪽방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예
해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2019.12, 개발에 대한 남대문 쪽방 주민 의견서 중

2.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의 배제



여전히 긴급재난지원금 제도
바깥에 머물러 있는 **거리홈리스**

전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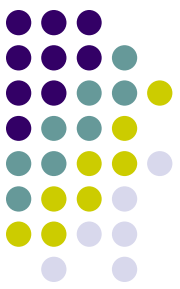
99.5%

거리홈리스

35.8%

지난 6월 초,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률'이 99.5%에 육박할 무렵,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신청률'은 35.8%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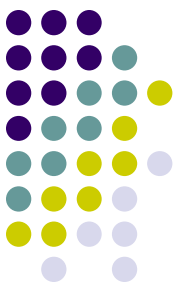
2.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의 배제

- 공무원이 와서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면 교통비, 통신비로 쓸 것 같아 좋겠다. 서울시에서 받은 선불카드로 먹고, 술, 담배로 다 쓰게 됐다. 시설 생활하면서는 다른데 쓸 수가 없었다. (정**, 52세)
- 지방, 서울 구분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급해 줘야 유용하게 필요할 때 쓰는 거지, 특정지역에서 쓰게 하면 카드깡 하고 불법이 난무하게 된다. 아니면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만든다. (김**, 63세)
- 김포가 주소지인데 지자체 지원금 신청하려 했는데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도 타야 해서 신청 못했다. 차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 5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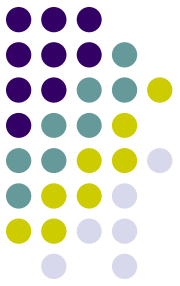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2.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의 배제

- 교통사고로 몸의 절반이 마비되었는데 수급을 못 받고 있다. 일시 보호시설로 가기 전에 역 지하에서 박스 깔고 살았다. 재난지원금 주면 방부터 얻고, 영등포직업소개소 가서 식당 설거지 일 하면서 살고 싶다. (윤**, 41세)
- 지하도 와서 현찰로 주고 가면 좋겠다. (김**, 60세)
- 아무 혜택도 없는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다. 지문조회로 본인확인이 되는데 민증 없다고 신청 받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등본을 가져갔지만 신분증 아니면 안 된다니 말이 안 된다. (임**, 58세)

3.차별과 배제를 넘기 위한 노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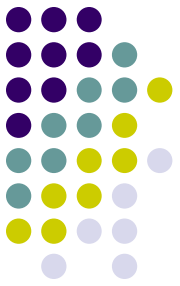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 쪽방 주민 퇴거 중단을 위한 활동들



총선 시기, 동자동 쪽방 주민 288명, 남대문로5가동 쪽방 주민 168명은 영등포와 같이 다른 쪽방에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재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 서명을 진행하였다.

3.차별과 배제를 넘기 위한 노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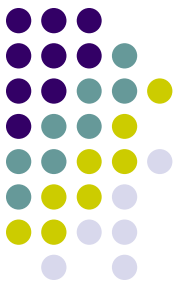


❖ 쪽방 주민 퇴거 중단을 위한 활동들



2020년 3월, 양동 쪽방주민들은 개발행위에 앞선 예비조치들로 인한 주민 퇴거, 건물 철거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시장 면담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응답하지 않았다.

3. 차별과 배제를 넘기 위한 노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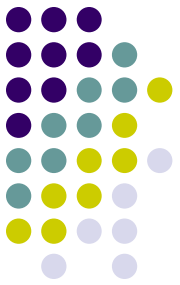


❖ 쪽방 주민 퇴거 중단을 위한 활동들



양동 쪽방주민들과 <홈리스 주거팀>은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주거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7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저녁 주민들과 “힘 모으기, 뜻 모으기, 수요 길거리 사랑방”이란 작은 문화제를 연다.

3. 차별과 배제를 넘기 위한 노력들



❖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 대응

6월 16일,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 개편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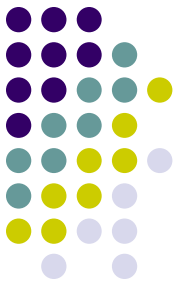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6월 24일, <‘쪼개기 고용’ 철회를 위한 일주일간 릴레이 항의 행동> 시작

- ▲서울시장 공관 앞 1인시위, ▲서울시의회 앞 피켓시위,
- ▲홈리스 당사자 요구 모으기, '할 말 있다',
- ▲기자간담회 등 개편안 철회를 위해 쉬지 않고 달린 일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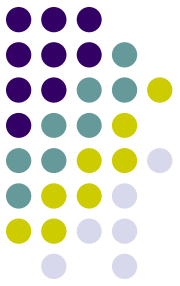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3. 차별과 배제를 넘기 위한 노력들



❖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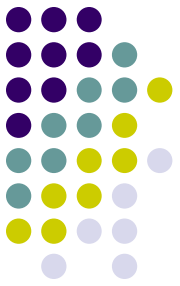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3.차별과 배제를 넘기 위한 노력들



❖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 대응

6월 30일,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 전면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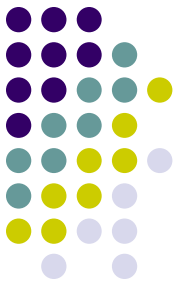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3. 차별과 배제를 넘기 위한 노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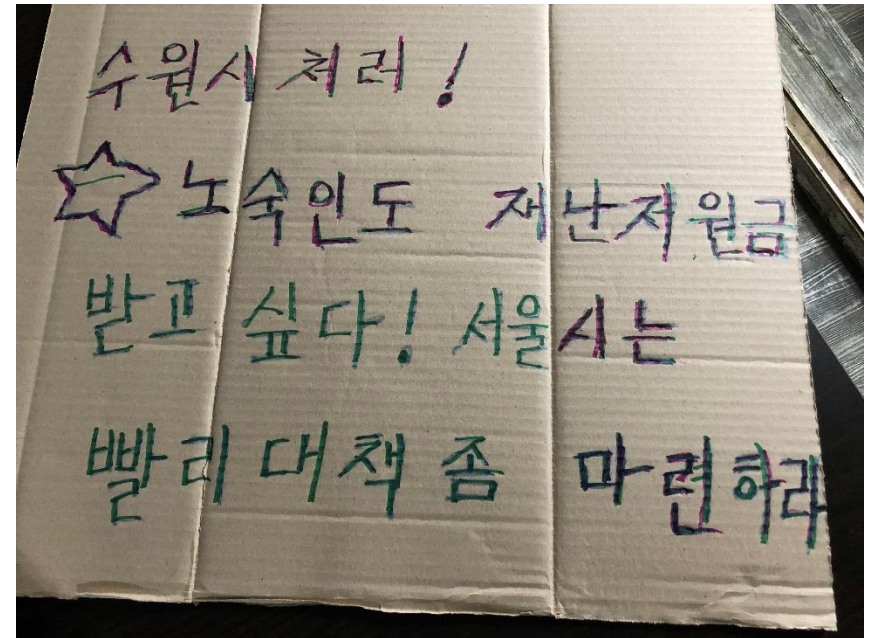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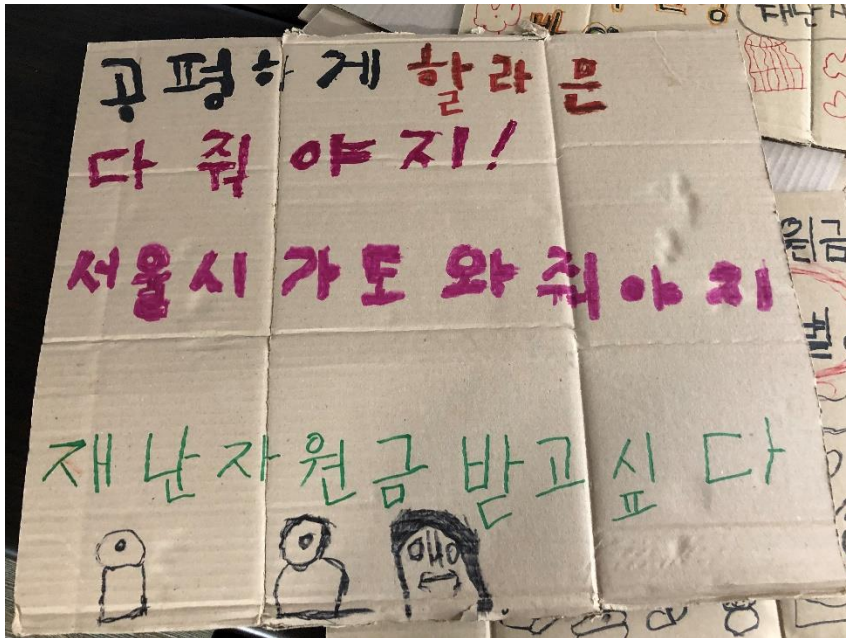
❖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보장을 위한 활동들



3. 차별과 배제를 넘기 위한 노력들



❖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보장을 위한 활동들



3.차별과 배제를 넘기 위한 노력들



❖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보장을 위한 활동들

[단독] 42만명 '거주불명자'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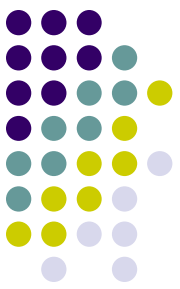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31 13:42 수정 2020.05.31 18:00



| 행정안전부, 노숙인도 지급 방안 검토

- 행안부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으나, 노숙인시설을 거점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현금 지급, 홈리스에 대한 별도가구 인정 등의 요구에는 더 이상 논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천원의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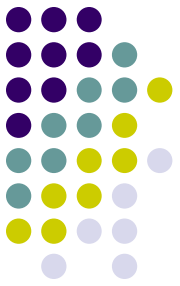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연대로, 아시아 풀뿌리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생활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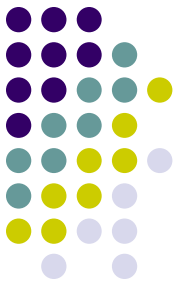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모아주신 기금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의 주민조직에게 지원됩니다.

- 4월 초, 한국의 ‘해외주민운동연대’(KOCO)에게 아시아주민운동연대 활동가들로부터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는 요청 도달.
- 민간차원에서 조달과 배송이 불가능 했으므로 ‘재난기본생활비’를 모금해서 전달하기로 함.
- 이 소식을 들은 동자동 쪽방주민들의 자치 모임인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에서 모금활동에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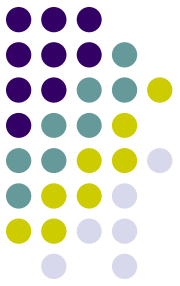
4.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천원의 연대’



4.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천원의 연대’



4.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천원의 연대’



- 모금액은 인도네시아 주민조직네트워크 JRMK에 전달.
- 모금액은 동자동 쪽방 주민 모금 약 150만원을 포함해 총 미화 5천 달러.

4.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천원의 연대’



- ✓ “내가 잘 나서 돕는 게 아니다. 우리도 도움 받지 않았나? 그 은혜를 갚는 거다. 그러니 감사하다”
- ✓ “코로나19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무척 어렵다는 걸 뉴스에서 봤다. 정부 대책이 없는 것 같다”
- ✓ “정말 잘 한 일이다. 우리의 1,000원이 그곳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 ✓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동자동의 엄청난 자부심이다”
- ✓ “이 돈과 함께 우리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 ✓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나가며



- ✓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숙인 등 지원체계의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야
- ✓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한 개발지역 쪽방 주민 퇴거, 홈리스에 대한 퇴거 조치 중단을 위해 나서야
- ✓ 국내·외 가난한 이들의 연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넘어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